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B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후 제3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4.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함께
----------------	-----------------------	-----

♠ 공동기도	다함께
--------------	-----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변전을 거듭하는 역사의 흐름을 바라볼 때마다 역사가 과연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역사는 자유의 확대 과정이라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많은 것에 매인 채 살아갑니다. 모든 생명은 평화로운 삶을 갈구하지만, 세상은 갈등과 분열로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품을 잃은 어린 새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세월이 벌써 반 백년인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뉜 것을 하나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형제 자매의 피가 흐른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십시오. 모든 상처 입은 이들의 품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고전6:19-20	인도자
----------------	-----------------	-----

♠ 교 독 문	2. 시편2편	다함께
---------------	---------------	-----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	-----------------	-----

대표기도	I. 한지혜 선생 II. 윤석철 장로
------------	-------------------------

응 답 송	찬양대
-------------	-----

찬 송	101.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함께
-----------	------------------------	-----

성경봉독	I. 시143	인도자
------------	---------------	-----

	II. 겔37:20-28	박재실 집사
--	---------------------	--------

찬 양	찬양대
-----------	-----

말 씬	I. 찬향 (讚向)	김재흥 목사
-----------	------------------	--------

	II. 신성한 땅은 어디인가?	김기석 목사
--	------------------------	--------

거듭기도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447. 오 신실하신 주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머무는 땅을 신성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미움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단호히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다함께 : 아멘. 맡겨주신 소명을 전심을 다해 받들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도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들을 품어주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당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몸으로 드리는 예배	에베소서 강해(41)/김기석 목사
사랑나눔교회 교우들과	기도 : 허정윤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김태환 선생 한상익 장로	인도자 김용진 권사

6월	영접위원	한상익	김근중	김용길	구명자	최숙화	최영혜
	헌금위원	방문성	김용진	윤주원	김애경	박혜경	문인옥

미사와 예배

성 세실리아 교회에서 열린 T 부인의 장례식에 다녀왔다. 사제로서 가톨릭 교회가 사용하는 제한적인 상징들을 활용하고 그녀가 신실한 이들에게 보여주었던 절대적인 확실성을 증언한다는 것은 참 멋진 일이다. 물론 죽은 이를 위한 미사(requiem mass)에는 슬픔에 처한 이들의 마음에 분명한 위로가 될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의식의 전 과정을 통해 영혼은 이생의 가슴 아픔이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고양됨을 체험하게 된다.

나는 미사가 잘 준비된 개신교의 장례의식—그 죽음이 큰 슬픔인 까닭과 망자의 덕성에 대한 회고도 포함되는—만큼 감동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사가 진부하고 감상주의적인 개신교의 평균적인 의례보다 월등하다는 것이다. 종교는 시이다. 시적 진실은 적절한 시적 상징들을 통해 생동감을 띠게 되고 그 때문에 평범한 설교자가 무한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빈약한 산문에 비해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는 시적 상징에 의해 생동감 있게 되기도 하지만 오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마술에서 생동감 있는 상징까지의 거리는 겨우 한 걸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제는 결국 마술을 사용한다. 마술을 포기할 때 종교는 조야하고 진부한 일상 세계 한복판에서 영원의 불꽃을 발견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사제는 내게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안됐다는 생각도 든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 마술에 스스로 속아왔으니 말이다. 그는 삶의 어려움을 간과한 채 너무 쉬운 승리를 거두는 일에 익숙하고 신자들로 하여금 설익은 평화를 누리게 해왔다. 개신교에서 생명의 강물은 모래 속으로 쉽게 사라진다. 그러나 그것이 흐르기만 한다면 거룩한 물보다 더 많은 생명을 실어 나를 것이다.(1920)

신뢰

오늘 S 부인을 심방했다. 암에 걸린 그녀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막 그 집을 떠날 무렵에 그녀의 손자인 E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고등학생인 그는 내게 질문이 있다고 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유대인 친구들이 예수는 사생아이며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일신이 아니라 두 신을 섬긴다고 그를 비난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삼위일체를 이원론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내겐 흥미로웠다. 그들은 정통적인 삼위일체론이 다신론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실제로는 세 신이 아니라 두 신을 내세우는 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E가 세례 준비반에서 배운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과, 이런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되는 교회 학교에 왜 잘 참석하지 않느냐고 가볍게 나무랐다. 나는 지난 번 모임에서 논의했던 예수의 인성과 독특성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나는 맥락 없이 끼어들어 자기 나름의 신학적 견해를 제시하는 할머니의 방해 없이 E와 대면하여 말할 수 있기를 바랐다. 다른 이의 종교적 버팀목들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한 세대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노부인은 내가 말하는 바를 미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각하게 끼어들지는 않았다. 그녀는 손자의 신학적 입장을 바로 잡아준 데 대해 내게 감사했고, 마치 내가 몇 마디로 말로 모든 난제들을 해결해준 줄로 여기는 것 같았다. “내가 그 애한테 말했죠. 목사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목사님이 네게 모든 것을 설명해 줄 거라고.” 어떤 사람이 내게 그런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안다는 것은 흐뭇한 일이다.(1921)

-라인홀드 니버, <<어느 길들여진 냉소주의자의 노트>> 중에서

하나님은 기분 좋게 주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기분 좋게 주는 사람이 잘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이웃의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쁨은 영혼을 사로잡는 사랑의 그물입니다. 기쁨은 사랑이 철철 흐르는 마음속에서 늘어납니다. || 마더 테레사

신의 정원에 들어갈 입장권

그리스도인들이 읽던 시편은 본래 신을 만나기 위해 성전을 향해 걸어가면서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그런 걷기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영성靈性을 수집하는 꿀벌처럼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풀려난 해방의 역사를 기리고, 신에 대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며, 자신들의 삶의 불안과 고뇌를 치료하는 약을 발견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오늘날 신앙의 쇠퇴는 보행步行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십 리나 되는 예배당을 즐겁게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걷는 동안 꽃과 새와 들판과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초록의 사원寺院에 깃든 신의 창조의 신비와 아름다움이 저절로 가슴에 새겨지곤 했습니다.

걷기는 곧 예배며 찬양이었고, 영원을 향한 순례였습니다. 하지만 걷기의 여백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은 ‘영원을 향한 순례’의 마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신을 향한 순례의 가장 소중한 덕목은 마음의 여백입니다. 미친 듯이 달려가는 자동차 속에서 아름다운 풍경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 듯이, 여백이 없는 마음은 신의 숨결로 피어난 꽃의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젊음을 향유하는 신의 정원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걷고 또 걷는 이만이 신의 정원에 들어갈 입장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고진하, <<이 아침 한줌 보석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조관행 홍선희 김용진 박효선 홍순구 안홍숙 정완수 김재광
 최종원 박은정 김혜권 김운수 박옥경 임원민 임수연 이에정 김성한
 조영순 최인환 임종우 김철수 유영남 조병무 송양진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해 박병구 황원순 황자순 김 극 고숙이 이경남 전영자
 문홍일

감사헌금:

김성한 조영순 이정은 김성자 김중수 이순정 권 순 최종원 서원금
 이소순 최희영 임미심 임원민 임수연 문인옥 김재경

생일감사헌금: 박병구 송임희 이형석 박제림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조 순 덕	홍 순 덕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배 부 례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임 정 자	진 정 애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곽 혜 자	김 명 순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애 순	박 옥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백 묘 현	문 복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홍 복 선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권 미 정	김 재 광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오 복 순	김 금 순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이 정 은	구 성 실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홍 숙	이 영 옥	정 현 주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임 수 연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혜 권	김 명 희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배 삼 순	유 혜 경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향 미	박 혜 경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임원회** : 예배 후 6월 정기 임원회가 열립니다. 100주년 기념 사업을 확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임원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월례회** : 임원회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3. **교사대학** : 6월 교사대학이 오후 12시 50분에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4. **오후집회** : 사랑나눔교회(장병호 목사) 교우들이 무언의 연극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합니다.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주시시오.
5. **성경공부** : 수요일 저녁에 하던 <에베소서 강해>, 목요일 오전에 하던 <전도서 이야기>가 금주 중에 끝납니다.
6. **원로장로위원회** : 중구용산지방 원로장로 위원회가 6월 30일(금) 오전 11시 효창교회에서 열립니다.
7. **심방** : 가정별 심방 일정입니다.
27일(화) - 가나안 속 28일(수) - 베들레헬 속
8. **냉난방헌금** : 교회 냉난방을 위한 헌금을 다음 주에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신앙실천** :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추모하며 전기와 같은 도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한 인물의 삶을 기려 봅시다.

* 식당 봉사 : 갈라디아 속

* 헌화 : 김철수 장로 (6.25 희생자 추모)

<새교우 소개>

2625 박의정 소속: 청년부

2626 유경민 소속: 4여선교회

7월	영접	김철수 김인걸 홍순구 유명남 이영란 이증자
	헌금	한상익 김중수 김근종 배삼순 최숙화 박효선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4: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